

# 치매노인 수호신 '배회감지기' 보급 저조

### 실종자 조기 발견 도움 장비...지급률 광주 1.6%·전남 3.1% 불과 실종사건 해마다 증가하는데 지자체 예산 부족 등 핑계 보급 꺼려

지난 27일 오전 9시께 두 손을 꼭 잡은 60대 부부가 합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찾아 연신 감사인사를 했다. 치매를 앓고 있던 A할머니는 사흘 전인 지난 24일 오후 3시께 집을 나간 뒤 갑자기 소식이 끊겼고, 남편인 B할아버지가 마음 고생을 심하게 했었다고 한다.

B할아버지는 당시 아무리 마을을 뒤져도 할머니를 찾을 수 없자, 오후 8시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날을 새며 합평을 일대 모든 CC-TV를 분석해 A할머니가 합평터미널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다시 무안읍으로 가는 버스를 탄 사실을 확인했다.

A할머니는 집을 나간 지 23시간이 흐른 지난 25일 오후 2시께 무안교육청 주변에서 무사히 경찰에 구조될 수 있었다.

경찰은 A할머니 구조 직후 배회감지기(실시간 위치추적장비)를 착용시켰고, B

할아버지는 직접 배회감지기 관리 방법을 배워야겠다며 이날 다시 경찰서를 방문한 것이다.

B할아버지는 "아내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회감지기를 잘 관리하겠다"며 "이런 장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진작 신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치매노인 실종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매노인의 동선 파악에 필수적인 배회감지기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배회감지기가 의무 보급품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예산부족 등을 핑계로 구입·보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광주 18만2315명, 전남 40만7827명이며, 추정 치매환자수는 각각 1만7809명, 4

만7200명이다.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광주·전남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는 총 1866건이다. 광주는 2016년 292건, 2017년 304건, 2018년 367건이었으며, 전남은 2016년 263건·2017년 304건·2018년 338건 등이었다.

치매노인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경찰과 공무원 인력이 수색·구조 활동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치매노인의 동선을 초기에 파악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PS(위성항법시스템)가 탑재된 손목시계 형태 배회감지기는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착용자가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보호자 스마트폰을 통해 경고를 울리는 기능 등이 있어 치매환자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남의 한 경찰은 "노인 치매환자는 이동 경로가 예상되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이 있고, 고령이다 보니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으면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다"면서 "치매노인 실종 전 경찰인력이 밤낮 없이 수색에 투입되는 탓에 치안공백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배회감지기 보급을 서둘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에게 보급된 배회감지기는 각각 292개, 1467개에 불과하다. 치매환자수 대비 배회감지기 지급률도 광주 1.6%, 전남 3.1%로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엔 올 들어 단 한대의 배회감지기도 지급하지 않았다.

전남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노인 치매환자들에게 배회감지기를 구매·지급에 나서고 있지만, 1개당 6만9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은 부담이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지 않다면 배회감지기를 구매·지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에서 치매노인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추석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 기승

### 광주경찰, 주의 당부

추석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서부경찰은 3일 "고령자를 속여 3000만원을 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대만인 A(38)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여·67)씨의 집 앞 현관에서 현금 3000만원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1일 입국한 A씨는 대만에 있는 보이스피싱조직과 연계해 B씨에게 국제전화로 통해 "우체국에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돼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 돈을 찾아 현관 앞에 놓아라"고 지시한 뒤 B씨의 집 앞에 놓인 현금을 훔쳤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1층에서 B씨의 아들에게 붙잡혔다.

B씨의 아들은 B씨의 휴대전화가 잠시간 통화중이라는 점을 이상히 여기고, 집에서 뛰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A씨를 붙잡았다.

앞서 지난달 7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대만인 C(36)씨가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D(여·72)씨의 집에서 현금 74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D씨가 금감원을 사칭한 대만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속아 집 냉장고에 넣어놓은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C씨는 또 같은 날 광주시 동구에 거주하는 E(83)씨의 집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2000만원을 훔쳤다. C씨는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달간 경찰에 신고된 광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3건이며, 피해액만 6억68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은 과거부터 수사를 진행하던 사건을 포함해 58건, 79명을 적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내년도 최저임금 위법" 민노총, 취소 소송 제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고시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인한 사용자 안(案)을 단 한 번의 토론이나 심의 없이 불과 6분 만에 표결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놓고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기준을 토대로 결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명시한 점을 거론하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2.87%)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7월 민주노총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민주노총은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다.



버스 고장에 교통 혼잡 3일 오전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송암공단 방면 고가도로에 버스가 한시간여 동안 고장난채 정차해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이 큰 혼잡을 겪고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대법 "여수시, 소경도 풍력발전 불허가 처분 정당"

여수시가 환경보호를 위해 풍력발전 개발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풍력발전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소송에서 "원심판결이 정당해 이유 없다"며 업체 측의 상고

를 기각했다.

이 업체는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2016년 5월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과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

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풍력발전업체는 2017년 4월 법원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모두 부지 경계 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중학생 딸 살해 의부·친모 무기징역 구형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결심 공판은 전남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 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A양을 수행한 혐의로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

딸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A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김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다.

김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씨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까지만 알고 있었지만 '수면제 역시 범행 목적이 아닌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처방받은 것'이라며 공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사고 차량 도우려 했더니...되레 차량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자신을 도우려 한 사람의 차량 뒷부분을 마구 들이받은 20대 만취 운전자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서행.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3일 새벽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정차해 있었는데, 때 마침 옆을 지나던 B(24)씨 일행이 차를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다가가자 "다가오면 차로 들이받겠다"고 소리쳤고, 이에 겁을 먹고 돌아가려는 B씨의 차량 뒷부분을 다칠 차례나 들이받았다는 것.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79%로 측정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융복합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의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무안군 동탄면 대형펜션**

영산강 접 경관 최고 땅 48900㎡ 펜션 14동과 수영장 등, 광주서 20분 목표시 10분, 토지상의 2천여평은 복지시설에 적합, 휴게소도 적합, 32억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청산면 신룡리 대지 440㎡ 주택 53㎡ 중용한 생활 최적화 4500만원
- 영광 백수를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표대략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무안군 온남면 하모리 11607㎡ 투자에 좋은 농림 1억5천 매도 3억6천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산 4959㎡ 펜션적합 교환가능 4억5천
- 남구 서동 상가와 137구 허가지역 땅 342㎡ 매도 4억3천
- 남구 덕남동 매품면 땅(담)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을 세랑리) 6645㎡ 조망좋은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은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관실내 다용도 가능 은행 8억 교환 19억

**상가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객실 27 대지 439㎡ 건평 989㎡ 국민은행 4억 매도 5천만원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신안군 암태면 부두에서 배로 10분거리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오양시 최고 영광 병성면 땅 5416㎡ 1층 477㎡ 중축가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 8억5천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층 주거지 땅 4413㎡ 축합 2억4천 투자에 좋은 4억4천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호텔APT적합 교환가능 1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임야

바로 삽니다, 맹지 사절

문의. 010-6834-74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기능·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기능·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전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